

# “각자의 고민이 모두의 고민”

헤민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서 '마음치유콘서트' 1000여명 참석



헤민 스님은 7월 7일 콘서트에서 참가한 이들이 서로 고민, 상처, 미래의 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참가대중은 다소 낯선 사람들이지만 대화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청량제 같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 헤민 스님이 울산에서 마음치유 콘서트를 열고 따스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전법단이 전국 순회로 개최하고 있는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가 7월 7일 울산을 찾았다.

“당신의 원이 이루어지길” “나의 원이 이루어지길”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스님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 행복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울산은 물론 경상도 일대에서 1000여 명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을 찾아 콘서트장인 한마음선원 대웅전을 가득 메웠다.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대웅전 앞에는 입장을 대기하던 인파로 북적였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대중들은 야외

에서 영상스크린을 통해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콘서트 시작을 알리는 헤민 스님의 인사와 함께 마음치유는 시작됐다. 첫 순서는 헤민 스님의 노래였다. 스님의 ‘try to remember’ 노래소리는 참가대중들의 마음을 축축이 적셨다.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는 스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내려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리였다.

헤민 스님은 서로 짝이 된 사람들과 어릴적부터 친했던 동창친구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최근의 가장 기뻐던 일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스님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눠 연령대 별로 가장 많이하는 고민을 털어놓게 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최현섭(49) 씨는 스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고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헤민 스님은 옆에 앉은 이와 대화를 하게 한 뒤 “자기를 볼 수 있는것은 수행 뿐”이라고 답했다.

참가대중들은 자신의 고민이 모두가 가진 고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을 읽거나 트위터 등 SNS로 접한 스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온 젊은 학생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포항에서 온 한 대학생은 “트위터로 평소 스님과 대화를 했는데 마음치유콘서트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울산까지 달려왔다”며 밝게 웃었다.

한편, 대전에서 있었던 마음치유 콘서트에서는 2000명의 인파가 몰려 1000명이 되돌아가는 등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는 7월 21일 오후 4시 부산 MBC아트홀, 7월 28일 오후 7시 제주 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지역소식

### 제7회 태종사 수국꽃축제

부산 영도 태종대 유원지 내 태종사(주지 종범)에서 7월 7~15일 제7회 수국꽃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민속춤과 난타공연과 함께 40년간 기근 각국의 수국200여 종이 사부대중의 눈을 즐겁게 했다. 조실 도성 스님은 “수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며 중성이면 흰색, 산성이면 청색,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이나 붉은색이 된다. 토양을 가꾸기에 따라 현현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내재된 불성을 발현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며 자신을 가꾸어라”고 말했다. 태종사는 향후 수국을 통한 마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몽골나담축제 열려

국제 불교교류 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과 ‘대구 마하 이주민센터’가 7월 8일 대구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체육공원에서 ‘제1회 대구 몽골나담축제’를 열었다. 몽골전통춤인 나담 축제는 몽골 이주민 150여 명이 참석 몽골 전통씨름인 ‘부흐’와 팔씨름,

달리기, 몽골노래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쳤다. 함께하는 세상은 “7월 4일 몽골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이주민들에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회장, 대구 마하 이주민센터 지도법사 덕현스님과 이수찬 소장, 박성태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이주민들을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수덕사 인근 문화유산지구로

충남 예산 수덕사 주변 용지가 사찰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된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7월 10일 덕산도립공원 내 덕송산과 수덕사 인근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3억 여원을 들여 기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해 설치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통사찰 중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법을 시행한 이후 모두 20개 국립공원에 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됐으며, 충남도가 도립공원 안에 문화유산지구를 정하기는 처음이다. 충남도는 대운산도립공원과 칠갑산도립공원에도 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낙산사에서 문무 겸수의 기회를

책 주제로 여름불교학교, 무술 캠프도 열려

양양 낙산사(주지 무문)는 7월 20일~22일 2박 3일간 낙산사 수련관인 인월요에서 ‘낙산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산사에서 책과 놀아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로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이와 함께 낙산사는 주지 무문 스님 지도 하에 전통무예 심팔기 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서울대 전통무예연구회 사범들이 학생들에게 무술을 지도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033)671-0881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법당 올라가는 길에 일렬로 배치한 석등(경기도 c 사찰). 석등 일렬배치는 일본 신사에서 볼 수 있다.

## 석등의 진정한 의미 찾기

등은 불을 밝히는데 쓰는 기구이다. 불교에서는 등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상징하는 징표로 생각하여 광명대라고 하였으며, 부처님의 진리가 불빛에 드러나도록 하여 중생을 깨우치는 공양구로 생각하였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등공양이야말로 복전을 이루는 최고의 공양으로 생각하였으며, 좋은 날에 연등행사를 함으로써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의 세계를 찬양하기도 하고 원등(願燈)을 세워 소원성취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석등을 장식적인 요소로 생각하여 특별한 장소성 없이 아무 곳이나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마당이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석등을 세우기도 하고, 양식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석등과 다른 모양의 것을 세우기도 한다. 더구나 일본의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석등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치된 많은 석등은 일본 신도의 상징이며, 일본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전각에 모실 때 항상 등을 같이 세워 탑과 불상을 한히 비추도록 하였다. 어두울 때에도 부처님의 진리를 밝혀 불자들에게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생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어두운 밤에 스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짐승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람에서 일본 신사의 참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석등을 일렬로 배치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며, 원등을 밝히고 싶은 많은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찰의 석등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게 비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에 등이 도입된 시기는 불교의 도입과 그 궤를 같이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유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등을 세우는 위치는 불상을 모신 주요 불전의 전면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밝게 비추도록 함으로써 부처님의 진리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따라서 등은 다른 기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밝게 비추기 위한 기능 때문에 만들었으며, 부처님을 비추기 용이한 위치에

《바로 잡습니다》 7월 11일자 본 코너의 부도형식 영탑 원으로 표기된 충남 사찰 사진은 다른 지역 사찰 부도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 제10회 약천사

## 태(胎)중 아기 (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제

입재 : 양력 7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속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2년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6월 11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7월 29일 (음, 6월 11일)
- 3 재 : 양력 8월 12일 (음, 6월 25일)
- 5 재 : 양력 8월 26일 (음, 7월 9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9월 9일 (음, 7월 2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제 49만원 ※ 위패비, 아기웃 (무료)
- 준 바 물 : 사탕, 과자, 분유(유유) 등
-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속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여 사는데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02)3391-8523 / 011-9002-8523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